

중국 강연시 투자유치단, 대덕 벤처에 '러브콜'

중 국 강소성 강연시 주지리양 부시장 등 강연경제개발구 투자유치단 일행이 6월 17일 대덕밸리를 방문,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벤처 기업들과 투자상담회를 가졌다.

이날 상담회에는 대덕밸리 벤처기업 에이팩을 비롯해 해빛정보, 유니플라텍, 지스트, 제3정보기술 등의 기업인들이 참가했다. 서지리양 부시장은 이날 상담회에서 “중국 강연시는 상해에서 북경방향으로 23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북경-상해 고속도로, 상해-남경고속도로와 연결되고 태주항, 남통항 등의 국제공항이 인근에 있어 對중국 수출입에 편리한 도시”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덕밸리 벤처기업인들에게 “강연시 경제개발구는 토지가격(50년 사용권)이 저렴하고, 기업소득세도 5년 면제 등 타지역과 차별성 있게 한국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곳”이라며 “대덕밸리의 신기술 기업들이 투자를 원할 경우 투자상담 단계부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연시 투자유치단과의 상담회를 주선한 케이에스테크놀로지 강기석 대표는 “강연시 정부가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므로 투자기업의 기술이전 등 협상에 따라 공장건물 임대, 관급 판로확보 등이 가능 할 것”이라며 “적은 투자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자상담회에 이어 투자유치단 일행은 유니플라텍 등 지역 기업들을 방문해 각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을 둘러보고 높은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신제품 신기술

엔지뱅크, 과학실험용 단백질실험 키트 출시



대 덕밸리 효소전문 바이오벤처기업 엔지뱅크(대표 신현재)는 효소를 이용한 단백질실험 키트를 개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단백질·효소실험 키트는 사람 몸 속에 다양한 효소들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으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소화, 호흡 등의 생화학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험용 도구다. 회사측은 앞으로 과학실험 용도에 적합한 효소 키트 시리즈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초·중·고등학교와 과학학원 및 과학영재센터 등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대표는 “이 실험 키트는 과학을 흥미있고 재미있는 과목으로 바꾸어 주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이번 실험용 키트를 오는 10월 중순 충북 오송에서 개최 예정인 '바이오 실험 경진대회'에 출시,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